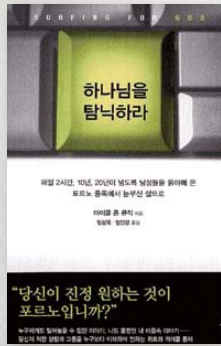


# 인생의 본질이며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인 “하나님을 기뻐함”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 교수)



마이클 존 큐직 저 | 정성욱, 정인경 역 | 홍성사



존 파이퍼 저 | 박대영 역 | 생명의말씀사

각각 다른 목적으로, 다른 저자들에게 의해서 기록된 책들의 요점이 비슷한 것은 그 주제가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가지 것들이 헌신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이 세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데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사실이 두 권의 책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책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이 두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 두 저자가 하려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의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강조가 우리시대에 중요한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것이 바로 죄이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결국 그 본질인 “하나님을 기뻐함”을 저버린 것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일 뿐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

본적 해결책이 된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이며,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하나님을 기뻐함”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두 저자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창녀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는 체스터튼(G. K. Chesterton)의 말을 인용한다. 가장 큰 죄악은 자신이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자신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

## 파이퍼의 “하나님 기뻐함”

베들레헬 침례교회의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을 갈망함”(Desiring God)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그는 베들레헬 침례교회를 개척한 지 6년째이자 40세 되던 해인 1986년에 이 책의 초판을 썼는데, 1983년 베들레헬 침례교회에서 행한 설교들을 기본으로 구성했다고 한다(『하나님을 기뻐하라』, 14). 그는 또한 2003년에 개정판을 내냈는데, 17년 동안 이 책의 내용을 시험하고 비전을 적용하면서 자신이 말하려던 바가 참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느 8:10)는 말씀이 결정적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철저히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하나님을 기뻐하라』, 17).

파이퍼는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작성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요약하면서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즐거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를 따르면서, 이 둘은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하였

다. 그는 이것을 조금 손질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by)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파이퍼는 이것을 “기독교 희락주의”(Christian hedonism)라고 명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sup>1)</sup> 하나님의 뛰어난성을 인정하는 것,<sup>2)</sup>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sup>3)</sup> 하나님을 즐기는 것 등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연관시키기도 한다.<sup>4)</sup> 또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나<sup>5)</sup>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고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sup>6)</sup> 그러나 그의 강조점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는 이러한 삶의 보편적 사명을 언급하면서 민족들로 즐거워하게 하라는 선교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다.<sup>7)</sup> 개정증보판에서는 고난에 관한 장(제10장: 기독교 희락주의의 희생)을 추가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강조하였는데, 전 장에서도 “특별히 오늘날 요구되는 것은 전시의 생활양식”(wartime lifestyle)이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하나님을 기뻐하라』, 259).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이 내용을 어떤 용어로 표현하든지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도 파이퍼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용어에 애착을 느끼면서 이를 변호하길 즐겨한다.<sup>8)</sup>

1) 그것이 이 책의 원제목이고(Desiring God, [Oregon: Multnomah Books, 2003]), 그의 사역 전체의 모토이다. Cf. Desiring God Ministries.

2) John Piper, *The Supremacy of God* (Grand Rapids: Baker, 1990).

3) John Piper, *A Hunger for God* (Wheaton, Ill.: Crossway, 1997).

4) John Piper, *The Pleasure of God: Meditations of God's Delight in Being God* (Sisters, Oregon: Multnomah Books, 2000).

5) John Piper, *The Purifying Power of Living by Faith in Future Grace* (Sisters, Oregon: Multnomah Books, 1995).

6) John Piper, *A God-ward Life*, 2 vols. (Sisters, Oregon: Multnomah Books, 1997, 1999).

7) John Piper, *Let the Nations be God: The Supremacy of God in Mission*, 2nd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Grand Rapids: Baker, 2003).

8) 이것이 머리말과 부록 2: “왜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부르는가”(426-32)라는 내용을 형성한다.





이것이 파이퍼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 그는 복음 전도와 자신이 말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그에게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이 용어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많은 사람들을<sup>9)</sup> 놓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파이퍼는 기독교 회락주의라는 용어를 옹호하기 위해 “기독교 회락주의는 일반적인 도덕적 정당화 이론이 아니다”, “내가 말하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이 아니다”(“하나님을 기뻐하라”, 29)와 같이 계속해서 부정의 형식으로 그 속성을 설명하는데, 이 모든 것은 이 용어를 버리고 단순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1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강조했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이다.

9) 그 대표적인 사람이 ‘파이퍼는 자신의 회락주의적 목적과 조화시키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첫 대담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 용어에 대해 비판하는 리처드 마우 같은 이이다. Cf. Richard Mow, *The God who Commands* (Notre Dame: Notre Dame Press, 1990), 33, 36.

또한 파이퍼는 가끔 하나님께 어떤 필연성을 부가하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는 “기쁨은 표현할 때 완전해진다”는 문장을 쓰면서, “우리가 감탄하는 것을 찬양할 수 없다면 우리의 기쁨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61)고 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찬만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셔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61)고 말하고 있다. 또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의 노력에 참여하신다”(66)와 같은 표현도 그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는 안타까운 표현중 하나이다.

그러나 파이퍼는 현대의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 성경적으로 균형 있는 비판을 하면서 정통 기독교를 충실히 현대 사회에 제시하는 대표적인 목회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sup>10)</sup>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의 영혼은 결국 소멸되고 마는 것이라는 다양한 영혼 소멸설(annihilation theory)을 정당하게 비판하였으며,<sup>11)</sup> 지옥을 교정 장소라고 보아 한시적인 것으로 여기는 조지 맥도날드의 입장을<sup>12)</sup> 바르게 비판하였다.<sup>13)</sup> 또 현대의 다른 경향에 의식적으로 반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서의 칭의를 강조하는 정통적 교리를 옹호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sup>14)</sup>

### 마이클 존 쿠틱의 『하나님 서핑하기』

그런가 하면 포르노 중독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의 회복’(Restoring the Soul)이라는 기관을 세워서 섬기고 있는 마이클 존 쿠틱 목사님은 『Surfing for God』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것을 요청하는 책을 썼다. 우리말 번역본은 포르노와 성에 탐닉하는 것을 극복 한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탐닉하라』를 제목으로 했는데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저자는 사람들이 포르노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포르노와 성에 중독된다고 보았다. 사실 인간은 더 큰 것을 위해, 승리하도록 계획되었으며, 하나님의 팀에서 뛰도록 선택되었다(37).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 포르노 같은 것에 중독되는데, 사실 “포르노는 아주 많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텅 없이 적은 것을 제공할 뿐”(49)이다. 특히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고도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54), 희생과 고난 없이도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55), 영혼과 무관한 열정과 생명을 약속하고(58), 책임 의식과 겸손함이 없이도 영성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며(59),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나(61) 사실 포르노는 이런 것을 줄 수 없다.

10) John Piper, *The Supremacy of God; idem, The Pleasure of God*, 47-75, 121-55; *The Justification of God* (Grand Rapids: Baker, 1993); 《하나님을 기뻐하라》, 40.  
 11) John Piper, *Let the Nations be God*, 제 4장; Piper, 《하나님을 기뻐하라》, 72.  
 12) Cf. George MacDonald, *Creation in Christ*, ed. Rolland Hein (Wheaton, Ill.: Harold Shaw, 1976), 63-81.  
 13) John Piper, 《하나님을 기뻐하라》, 73. 파이퍼와 같은 입장은 모든 정통주의자들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런 입장에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 언급하자면 J. I. Packer, “Good Pagans and God’s Kingdom,” *Christianity Today* 17 (17 January 1986): 22-25; idem, “The Problem of Eternal Punishment,” in *The J. I. Packer Collection* (Downers Grove, Ill.: IVP, 2000), 210-26을 보라. 또한 이승구, 《전환기의 개혁 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8), 25-31, 175-77 등도 보라.  
 14) John Piper, *The Justification of God* (Grand Rapids: Baker, 1993); Piper, *The Future of Justification* (Wheaton, Ill.: Crossway, 1997); Piper, *Counted Righteousness in Christ* (Wheaton, Ill.: Crossway, 2002); Piper, 《하나님을 기뻐하라》, 77.

인간에게는 그보다 더한 갈망이 있는데 이 진정한 갈망에 주목할 때 포르노나 성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궁극적인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 포르노나 성 중독 문제는 물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특히 187-89 참조).





**마이클 존 쿠키의 논의의 문제점**

기본적인 접근은 좋으나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7가지 핵심 갈망-관심, 사랑, 인정, 수용, 만족, 의미, 안전(75)-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또 강박적인 성격 행동과 싸우는 남성들의 모임을 지도하면서 시작할 때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촛불을 켜고 말하도록 했다는 부분(195)에서 그런 방법론에 집중하게 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

다. 중독을 일으키는 경로가 약해지고 '다시 생각해봐'라는 경로가 강해질 때 뇌의 재조정이 이루어진다는 논의(243)도 이런 강화이론의 단순한 변용으로 충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포르노와 겪는 갈등은 "오랫동안 학습된 반응"으로 뇌는 변할 수 있다(246)는 것에서도 이런 S-R 이론의 변용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행동수정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충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의 가르침에 좀 더 충실했더라면 더 좋은 책이 되었을 것이다. 또 헨리 나우웬(Henry Nouwen)이나 아빌라의 성 테레사의 『내면적 성』(The Interior Castle),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입재 연습』등을 긍정적으로 인용하거나 소위 '관상 기도'를 권하면서 이러한 천주교 영성 실천



가들의 사상과 실천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기독교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을 기독교적 가르침과 나란히 소개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심각하게 오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상 숭배와 가짜 예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때에만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기본적인 논의에서는 매우 옳으나, 구체적인 상담 과정과 방법에서 좀 더 하나님 중심적, 성경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상담이론과 실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성경적인 기독교 상담학자인 래리 크렘 밑에서 인턴으로 있었던 저자답게 우리의 악함과 죄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 성경적인 접근과 실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실천적 분야에 주어지는 도전이다. 저자는 물론 우리도 좀 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진정으로 신앙과 학문과 실천과 삶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국 St. Andrews 대학교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전공의 석사 학위(M. Phil.)와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합신 교수 외에도 연약 교회의 협동 목사로 말씀을 섬기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가 나아 갈 길>,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의 기독교세계관 시리즈 책과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신경>, <광장의 신학>,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책과 <개혁신학 탐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등 개혁신학 책을 내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2월28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김민지, 박진호, 3천 구재형, 김성근, 임고은, 정필규, 조성진, 3천5백 기월현, 김경현, 김경희, 김수경, 김은호, 김태우, 김희원, 남지민, 노주하, 생명의강, 영음사, 정경식, 정세열, 진성자, 최원길, 허태실, 한진영, 황보남이, 5천 강지혜, 고은하, 고은하, 구성덕, 권명중, 권지연, 김경식,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남진, 김대용, 김도희, 김미정, 김병국, 김봉우, 김상우, 김성민, 김성은, 김성찬, 김영호, 김경영, 김정식, 김정원, 김정준, 김준, 김철수, 김태윤, 김형아, 김혜창, 김효태, 박기연, 박승룡, 박준모, 박찬규, 박해일,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철호, 신기혁, 신찬용, 심정하, 안현상, 양영태, 우수민, 유은자, 유창은, 유종훈,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노윤, 이덕재, 이명진, 이민하, 이승환, 이원배, 이윤희, 이은미, 이인수, 이진영, 이항숙, 임선재, 임훈택, 임형준, 장현일, 전정진, 전충국, 장수빈, 조인진, 조혜경, 주경식, 지경순,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5백 고상선, 구준희, 김영숙, 민수진, 백은미, 영양교회, 이상훈, 이은순, 이주희, 천허은, 9천 김창현, 1만 강은정, 강호영, 강효식, 고은남, 고현경, 권민규, 권성아, 권순복, 김경원, 김경희, 김고은, 김광순, 김동우, 김막미, 김성경, 김성민, 김성상, 김성인, 김세영, 김세완, 김세환, 김세환,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요한, 김용석, 김우신, 김은덕, 김은혜, 김정호, 김종국, 김준희, 김중훈, 김진아, 김창현, 김현경, 김형길, 김형수, 김홍섭, 김효숙, 나동훈, 남서희, 류의근, 류화영, 민민호, 박강국, 박경원, 박광재, 박능안, 박대원, 박두한, 박상국, 박시은, 박영주, 박정숙, 박종현, 박종훈,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태양, 박현경, 박해경, 박희주, 배지연, 백경은, 서화진, 소종화, 손현택, 송미정, 송준철, 신상형, 신성자, 신성혜, 신현주, 신호기, 안석, 안영혁, 안용준, 양병국, 양행모, 양혜원, 엄지은, 오지순, 원호영, 유건호, 유경상, 유영준, 유지환, 유해무, 윤동수, 윤상현, 윤영희, 이경숙, 이계심, 이관후, 이관철, 이규현,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복, 이명수, 이명원, 이상수, 이상수, 이상수, 이상엽, 이시영, 이언규, 이영훈, 이윤재, 이은자, 이은주,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종국, 이준성, 이지연, 이한길, 이해리, 이호선, 임동진, 임영, 임일택, 임지연, 장승재, 장인숙,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동섭, 정상록, 정용수, 정은희, 정정숙, 재양규, 조백희, 조용현, 차봉준, 차정규, 최상열, 최성두, 최세진, 최윤영, 최진우, 최한빈, 추진연, 태영숙, 하진호, 한인관, 한정호, 한혜실, 허한정, 허 현, 현승건, 홍선호, 홍정성, 홍준호, 홍철의, 황규영, 황세환, 황대원, 황해정, JINSONGLIE,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정상섭, 최동원, 한국집지, 2만 강대훈,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문대성, 문석윤, 박영혜, 박 한, 배성민, 배은경, 변우진, 송환아, 우시경, 이 건, 이대환, 이명희, 이현정, 전광학, 전중화, 조창근, 한화진, 2만2천5백 최병호, 3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승남, 박상진, 박신현, 서성록, 양성만, 오익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조우성, 최용준, 최진호, 추태화, 황익서, 황정진, 3만2천5백 김경모,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로, 서진희, 송인규,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10만 김승태, 김원수, 김익원, 박상은, 송봉호, 임인평, 전광식, 최태연, 12만 김해정, 신경훈, 이상용, 최홍영, 30만 김승욱, 60만 양승훈

**기관후원**

1만 빛과소금교회, 5만 개봉교회, 대구서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온공동체교회, 신정현교회, 상록회개업인,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열린교회, 예심교회, 자운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참빛교회, 20만 명성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연약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00만 엘비전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의 재정내역은 매월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들을 풀어내는 유일한 기독교세계관 잡지 『월드뷰』.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